

# 웰빙 시대의 화장품 문화와 피부 관리

DMS 교육부장

박혜리

웰빙은 '행복', '삶의 만족', '질병이 없는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행복'이나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웰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되며, '질병이 없는 상태'의 웰빙은 개인적 건강의 추구를 의미한다. 구미에서는 웰빙이 여성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시작 했는데 채식주의, 생태주의와 같이 천건강, 친환경성을 지향하는 사회대안 운동에 뿌리를 두고 1990년대 이후 웰빙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파고들었다.

한국에서의 웰빙 개념은 2000년 이후 대중매체를 통해 도입되기 시작 했다.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사회에서는 건강을 지향하는 생활양식으로서 웰빙이 등장 했다.

환경의 악화, 고령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웰빙은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정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건강은 스스로의 생활양식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한 정보획득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 되어 지고 있다. 새로운 웰빙 직업군이 생겨나고 대학에서 웰빙 건강 관리학과가 개설 되는 것은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앞으로 현대문명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 되고 있는 웰빙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건강'과 '장수'는 모든 인류의 소망 인 만큼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웰빙 시대에 발맞추어 화장품 시장도 변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화장품에 들어 있는 약 5천종 이상의 화학물질들에 의한 피부트러블은 피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화장품 트러블의 대표적인 화학첨가제로는 유화제, 방부제, 인공색소, 인공향, 미네랄오일, 실리콘, 아민, 바셀린 오일, 파라핀 오일 등이 있다. 크림이나 로션, 립스틱, 파운데이션 등 모든 화장품에는 지방성분이 첨가 된다. 동물성유지나 라놀린, 밀랍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어 냄새가 나고 변색이 되며 산화반응이 빨리 진행되어 과산화물이 생기는데 과산화물을 방지하기 위해 산화방지제와 살균제를 첨가한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그 독성으로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화장품의 주요성분은 물과 기름인데 이 물질들을 섞어 크림상태로 만드는 것이 유화제이다. 화장품에 5~8% 들어 있는 계면활성제는 피부로부터 지질을 빼앗아가 얼굴을 거칠게 하거나 습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립스틱을 비롯한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색소가 첨가 된다.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타르색소는 석유에서 분리하여 합성하며, 90여종이나 되며 이들 대부분은 발암성이라고 알려졌다. 색조 화장품에 쓰이는 안료에는 수은, 납, 크롬 같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얼굴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매우 유해하다. 향료는 색소와 함께 화장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첨가물 중의 하나인데 크림, 로션, 립스틱이나 치약에 이르기 까지 향료가 들어가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합성향료는 약 4,000여 종으로 알코올제, 알데히드제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이 화학물질들은 피부에 자극을 주어 알레르기 부작용을 일으킨다. 대부분의 화장품은 미생물의 성장에 적합한 상태이므로 화학적 변화로 인해 제품이 부패하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첨가물로는 금지되어 있는 살리실산, 페놀, 크레졸 등의 발암성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

DMS는 극심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공업용품의 남용 속에서 피부는 자연 그대로의 보호와 재생 기

능을 서포트하며,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한 노력의 산물로 특허 기술과 하이테크 기술을 통하여 기본적 첨가물인 유화제, 방부제, 향 등을 철저히 배제시킴으로 피부의학 향장학 분야에 현 시대 추세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 내어 향장 산업의 신기원을 이룩하고 있다. DMS의 제품의 철학으로는 피부는 어떤 타입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시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피부 보호 제품은 이러한 피부의 자연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피부조직 자체를 바꾸어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신속한 Therapy로 조직 자체를 도와 피부를 개선케 하여 타고난 피부 고유의 특성을 되살려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기준으로 제품을 탄생시켰다.

우리 피부의 각질층은 15~20장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케라틴과 지질이 라멜라 구조(이중막 구조)로 이루어져 방어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세포 간 지질은 장벽에서 매우 중요한데 지질막이 파괴되면 피부 장벽 기능에 손상이 생겨 이물질이나 세균의 침입이 쉬워지게 되며 수분 손실이 점점 커지게 된다. 경피 수분 손실량인 TEWL(Trans Epidermal Water Loss)이 증가하면 피부 건조, 인설, 피부 갈라짐 등이 발생하고 결국 가려움, 피부 과민반응 자극감 등의 증상이 있다. 피부에 수분과 부드러운 유연성과 탄력성을 주어 피부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각질층이다. 건강한 피부의 기본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각질층에서부터 시작 된다. 보호 장벽에 틈이 생기거나 손상을 입으면, 피부는 예민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들에 시달리게 된다. 보호 장벽에 손상이 오는 이유는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유화제, 보습제에 의한 피부 지질 손상은 장기간 과다하게 사용했을 경우 지질을 용해시킨다. 물리적인 인자로 자외선을 들 수 있는데 지질의 과산화로 피부막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반복적인 자극(rubbing) 미네랄 오일과 라놀린 등에 의한 지질막의 장기적인 폐쇄는 피부 재생 능력을 파괴한다.

DMS는 유화제를 대신하여 독일 특허 승인을 받은 콩의 레시틴에서 추출한 포스파티딜 콜린을 이용하였다. 레시틴은 뇌와 신경조직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며 피부 자체의 천연 수분 보호막을 강하게 해 준다. 포스파티딜콜린은 가장 대표적인 인지질로 글리세린에 지방산과 인산, 콜린이 결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포스파티딜콜린은 모든 생물학적 구조막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며 다량의 리놀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매우 효율적으로 피부 내에 리놀산을 운송한다.

피부적용 시 기타 활성 인자들의 피부 침투를 돕는 운송인자 이며 각질층에 저장소를 형성, 보급을 조절하며 오래 동안 그 효과를 지속 할 수 있다. DMS물질을 이용한 대표적인 테라피로 펜실바니아 대학의 Alber M. Kligman교수에 의해 주창된 코르네오테라피가 있다. 각질층테라피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각질층은 피부질환 치료에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모든 치료는 피부의 살아있는 세포층에 집중 되어 왔으며, 곧 피부 깊은 층이 건강해져야 각질층도 건강해진 수 있다는 inside-out 테라피 만이 중요시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클리그만 박사는 각질층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 하면서 피부 깊은 층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각질층의 치료(outside-in therapy)를 병행한 결과 놀랄만한 치료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각질층, 곧 피부장벽은 외부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는데 모든 문제성 피부는 이러한 각질층이 손상되어 있다. 피부는 스스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각질층이 손상되면 공격적인 화학물질과 미생물 등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방해로 받아 결국 자생력을 잃게 된다. 곧 손상된 각질층을 건강하게 해주면 피부는 깊은 곳에서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자연적 재생력을 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피부를 돕는 화장품의 역할에 있어서 진정한 웰빙 테라피인 것이다.

DMS는 단순한 화장품의 역할에서 진일보하여 피부 병리학적 테라피를 보완, 피부 자생력을 키우는 제품이다.